

굴개굴개 청개구리

해 설: 옛날 옛날 말썽쟁이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. 청개구리는 엄마말씀은 듣지 않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. 서라면 앉고, 앉으라면 서고, 오라면 가고, 가라면 오고...
엄 마: 아들아~ 노래연습 시간이다. 엄마 따라 노래를 불러보렴!!

♪개굴개굴 개굴개굴 폴짝
개굴개굴 개굴개굴 박수
개굴개굴 개굴개굴 스키
개굴개굴 개굴개굴 물개
앞다리~뒷다리~
뒷다리~앞다리~♪

청개구리: 으아~노래하기 싫은데.. 좋았어! 반대로 개굴개굴을 굴개굴개라고 부르는 거야!

♪굴개굴개 굴개굴개 짝퐁
굴개굴개 굴개굴개 수박
굴개굴개 굴개굴개 키스
굴개굴개 굴개굴개 개물
뒷다리~앞다리~
앞다리~뒷다리~♪

엄 마: 어머머머머머~ 다시다시 똑바로 불러보렴~!!
청개구리: 엄마, 난 노래하기 싫어요. 재미없다구요. 친구들이랑 놀다올게요.
엄 마: 잠깐! 황새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하는 동물이야. 알겠지?
청개구리: 우하하하하~ 황새가 우리를 잡아먹는다구요?? 걱정마세요~ 그럴일은 없다구요!
엄 마: 물풀 숲에 사는 황새를 조심해야한다. 황새조심!
아 들: 새항 새항 라물 라물~
해 설: 청개구리는 물풀숲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. 바로 그때! 물풀숲에 사는 황새가 나타나 청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.
엄 마: 애들아~ 황새를 조심해!
청개구리: 엄마!!!애들아 큰일이야! 이러다가 황새한테 잡아먹히겠어.
엄 마: 어머머머머머 으악~
해 설: 엄마 말씀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를 구하려다 그만 엄마는 황새의 공격에 쓰러지고 말았어요.
엄 마: 아들아.... 엄마가 하는말 잘 듣거라. 엄마가 죽거든..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거라

알겠지?

청개구리: 엄마.. 아프지마세요. 엄마 말 잘 들을게요.

해 설: 엄마는 무엇이든 거꾸로 하는 청개구리가 비가와도 떠나려가지 않는 산에 물어주길 바라며 냇가에 물어달라고 이야기했어요.

청개구리: 으앙~ 개굴개굴 엄마~ 개굴개굴~ 내가 너무 말을 안듣고 거꾸로만 해서 엄마가 돌아가신거야. 엄마의 마지막 말씀만은 꼭 들어드릴 거야.

해 설: 청개구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엄마 무덤이 떠나려갈까 걱정이 되었어요.

청개구리: 으앙~~ 엄마~개굴개굴

엄 마: 아들이야~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었구나. 엄마는 괜찮단다. 이제부터 반대로 행동하지 않는 착한아들이 되길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마.

해 설: 하늘에서 청개구리를 지켜보신 엄마는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청개구리가 대견했어요.

청개구리: 앞으로 나는 반대로 대장 말고 똑바로 대장하려고!

다음에 만나면 똑바로 대장이라고 불러줘~ 그럼 안녕~